

녹색에너지연구원, 영광군과 에너지신산업 발전 협약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반 구축 사업 협력키로

전라남도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주동식)이 영광군이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반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후속 에너지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이를 위해 영광군과 에너지신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에너지신산업 지속 발굴 및 에너지 관련 우량 기업 유치 ▲지역사회 기여 등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와 영광군이 참여하는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반구축' 사업을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 일반산업단지에서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반구축 사업은 해외수출을 위한 GIS, 케이블, 수배전반 등 노후 기자재를 재제조하는 것이다.

국비 41억, 지방비 18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전국 최초로 재제조 기반구축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원순환경제를 통한 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역량을 활용해 영광군 에너지신산

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 에너지신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친환경에너지 전문 연구기관과인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협업해 신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에서 출원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용운 기자



전라남도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주동식)이 영광군이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반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후속 에너지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 제공

강기정 시장, "美샌안토니오와 첨단산업 파트너로 성장 기대"

자매결연 40주년 맞아 론 니렌버그 미국 샌안토니오 시장과 화상회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미국 샌안토니오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24일 오전 시청에서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 시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두 도시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와 미국 샌안토니오가 문화·예술을 뛰어넘어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미국 샌안토니오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24일 오전 시청에서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 시장과 화상회의를 진행

하고 두 도시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강 시장은 "1982년 자매결연한 광주와 샌안토니오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적 교류 물꼬를 트는 등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화합과 우정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공공예술 선도도시 샌안토니오는 문화와 예술을 뛰어넘어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교류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 광주와 사이버보안 대표 도시 샌안토니오가 함께 첨단산업 파트너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시장은 "다음 달 열리

는 샌안토니오 세계유산축제의 메인 주제가 광주다. 광주시는 샌안토니오에서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시립미술관 전시를 열고, 광주 대표 요리사가 현지에서 광주의 맛을 소개할 예정이다"며 "내년에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는 시립교향악단의 연주 공연과 더불어 두 도시의 교류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 시장은 "광주는 지난 40년을 넘어 앞으로 함께 성장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자매결연 40주년을 계기로 시민들도 두 도시에 대해 잘 알고 서로 더욱 친밀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니렌버그 시장은 "앞으로 문화와 예술을 넘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빈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차량 반도체 스타트업 보스반도체에 투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하며 차량 반도체 스타트업인 보스반도체에 투자를 결정했다.

보스반도체는 고객사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및 개발하는 팹리스(fabless) 스타트업이다. 보스반도체는 올해 설립돼 차량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설계 ▲CPU 및 그래픽 ▲고속 신호 인터페이스 등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해 글로벌 수준의 팹리스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새로운 차량에 필요한 최적화된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술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경쟁력 있는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반도체 업체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

획이다. 이번 투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설립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제로원(ZERO1NE)의 2호 펀드에서 진행됐다.

제로원 2호 펀드는 지난해 2월 현대차, 기아, 현대차증권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협력이 출자하고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해 조성된 기금이다.

제로원 2호 펀드는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차 ▲AI ▲커넥티드카를 비롯한 미래 신사업 스타트업에 투자해 관련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이노베이션담당 지영조 시장은 "앞으로 보스반도체와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다른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39층 새로운 컬처라이프의 중심.

완벽한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누리다!

중흥S-클래스 문화전당 & 층장
[시공예정사 : 중흥토건]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84㎡A·B, 113㎡

문의 062. 351.9999

시행 (가칭)The50센트럴 금동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코리아신탁(주) 업무대행사 데에이치산업개발



※ 상기 투자는 사업승인 도장을 바탕으로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계약된 CG(건설보증)로 설계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명사, 욕실, 화장실, 외벽색 및 마감, 분양계획, 시공일 등 위에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실례될 수 있습니다.